

“직무 적합성 따져 직접 영입한다” 신입 뽑을 때도 ‘헤드헌팅’ 대세

**고용부, 작년 하반기 채용동향
인재풀서 찾아 직접 소통 후 영입
신입 42% ‘다이렉트 소싱’ 활용
기업들, 채용연계형 인턴제 확대
“정규직 전환 전 역량·태도 따져”**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 직원 채용시 헤드헌팅을 활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채용 담당자가 확보한 인재풀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도 10곳 중 4곳이 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12월24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387개 기업(응답률 77.5%)이 응답한 결과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식에 더해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중심으로 헤드헌팅이나, 채용담당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 인재풀에서 찾아낸 후보자와 직접 소통하며 영입하는 적극적 채용방식인 ‘다이렉트 소싱’ 방식이 많이 활용됐다.

신입직원 채용방법(복수응답)은 채용공고(88.1%)에 이어 헤드헌팅(61.2%), 다이렉트 소싱(42.4%), 현장 면접 채용(40.1%), 산학 연계 채용(31.3%), 대학 협업 채용(3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방법에서 헤드헌팅(81.9%), 다이렉트소싱(51.2%) 비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센터 기업채용공고 게시판에 구인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율이 높아졌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지원자의 업무성과 또는 평판 검증’(35.1%), ‘직무 적합성 확보’(33.2%) 등을 위해 다이렉트소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일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기다리는 채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채용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입직원 채용시엔 인턴제도를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9.9%는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중 68.1%는 인턴기간 중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운영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인턴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84.8%였고, 정직원 전환 기준은 ‘태도 및 인성’(65.2%), ‘직무역량’(62.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정환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시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기 영농재개 위해 다각적 지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불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30일 경북 의성 지역 내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원 및 축산농장을 찾아, 농업 분야 피해와 응급 복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상북도와 의성군에 전방위적인 피해 복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성, 청송 등은 과수원 등에 피해가 많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활용해, 전소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업, 농기계·자재 회사 등과 협력해 농기계·비료·농약·농기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의성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대형산불 재난을 겪은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어 축사시설 전소로 가축이 대부분 폐사된 양돈농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축사 복구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력 등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안정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기되는 농산물 수급 우려와 관련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과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물산업 매출 50조 돌파… GDP 대비 2.1%

환경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국내 물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 기준 GDP는 2400조 원이었고 물산업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다.

환경부가 30일 공개한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8075개로, 전년도(1만7553개)에 비해 약 3% 늘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9199개,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772개 등이었다.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50조9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연도 GDP(2401조2000억 원)의 2.1%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종별 매출 규모를 보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7조1570억 원(53.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 14조 9752억 원(29.4%)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을 비롯한 청소 및 정화업 4조4880억 원(8.8%)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3768억 원(8.6%)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 폭은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4.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수출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450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 이중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분야가 40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종사자 수는 21만1385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7만8502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특화지구 1호’ 순창·신안 선정

농식품부, 5년간 최대 100억 투입
임산물·유채꽃 융복합산업 육성

전북 순창과 전남 신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제1호 대상지로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 1차 대상지에 2곳(순창군, 신안군)을 선정했다.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추가한 것이 이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에 정부가 시설 신설·재배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순창군과 신안군은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

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2개 군에 각각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순창은 구립면 운남리·방화리 일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올해 준공 예정)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해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

신안은 ‘엘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원산지 일대에 72헥타르(ha)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

든다. 바로 옆에 자리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t)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를 조성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하에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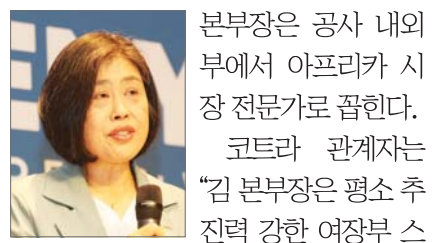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트라, 63년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 선임

김명희 혁신성장본부장 임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31일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사진)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상임이사에 여성이 임명된 건 공사 설립 이후 63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희 본부장은 1995년 입사 이후 브뤼셀, 파리 등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알제,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지역전문가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김



본부장은 공사 내외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평소 추진력 강한 여장부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동료들의 든든한 신뢰를 받아 왔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에너지 인프라·서비스·ICT·소비재·바이오의료 등 수출 신산업의 해외마케팅을 책임지는 혁신성장본부를 이끌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